



벌거벗은 줄리엣
닉 혼비 지음

일상 반곳 채워주는 짜릿한 판타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NCR 상을 비롯해 E. M. 포스터 상을 수상한 닉 혼비가 '벌거벗은 줄리엣'을 발간했다. 그의 소설에는 도저히 쩌다고 할 수 없는 철없는 어른이 등장해 삶의 딜레마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씩씩하면서도 유쾌하게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하게 사람 냄새나는 서사를 풀어놓는다. 제목이 암시하듯 소설은 등장인물의 벌거벗은 어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환멸과 맹목, 어리석음과 수치를 넘어서는 서술방식은 일상을 판타지로 그려낸다. 판과 로큰롤 마니아인 저자는 이번 소설에서 '음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사랑, 성장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영국의 활랑한 해안가 마을에 사는 애니와 당컨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 애니는 당컨이 새 직장 동료와 바람피 사실을 알고 그를 집에서 내쫓는다. <문학사상·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깨져라 미학...
이상현 지음

강연 형식으로 쉽게 풀어 써

미학은 어렵고 낯선 학문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 예술작품, 디자인 상품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느낀다. 예술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는 시대에 미학은 대중적인 학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학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 재미있는 강연 형식으로 미학을 풀어놓은 책이 나왔다. 대중에게 한학을 쉽게 안내하는 한옥연구가 이상현 씨가 펴낸 '깨져라 미학 유쾌하라 예술'은 미학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비교적 논리가 단순한 고전미학을 이해한다면 복잡한 현대예술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현대예술에는 고전미학이 유전인자처럼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저널·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로봇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지음



무인자동차, 자동 번역 기계, 전투로봇... 과학기술의 발달로 머잖은 장래에 로봇시대가 열릴 것이다. 과연 우리의 직업은 10년 뒤에도 존재할까? 무인자동차에 운전대를 넘길 수 있을까? 로봇이 나오다 더 똑똑해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 자동화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제2의 기계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억과 학습능력을 뛰어넘는 '외뇌시대'는 이미 도래한 미래다. 인간이 만든 도구가 노동과 지식을 재편하며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디지털 인문학자이자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인 구본권 씨가 펴낸 '로봇시대, 인간의 일'은 미래에 맞닥뜨릴 현실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스마트 시대에서 인공지능 로봇 시대로 진입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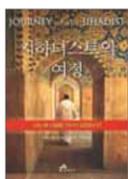
2014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 컴퓨터에서부터 무인자동차, 반려로봇까지 최근 기술은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다. 테슬라모터스 CEO인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기술 철학자인 랭던 위너는 "우리는 세계지도에 없는 '테크노폴리스'라는 국가의 시민이다"고 말한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기였고, 또한 어리석음의 시기였다... 희망의 봄이었고, 또한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전국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또한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지만."(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중) 찰스 디킨스의 묘사는 오늘의 시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주변에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 기술과 기기가 넘쳐난다.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하나에 적응하고 나면 이내 새로운 도구들이 출현한다. 물론 기술과 기기를 잘 활용해 삶의 질을 변화시킨 이들도 적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부지기수다. 스마트폰 중독군, '카페인 우울증'(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바탈감을 느끼는 증상)에 시달리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저자는 로봇 혁명이 재편할 10가지 생

각의 지도를 펼쳐놓는다. 첫 번째가 바로 무인자동차다. 머잖아 '드라이버'라는 단어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주는 기계'를 뜻한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무인자동차 시장은 2020년에 약 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번역 시대도 멀지 않았다. 과연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대두된다. 물론 과거처럼 외국어를 몰라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줄어들겠지만 중요성은 여전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2차 자료보다 1차 자료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스스로 원문을 찾고 활용하는 편이 창의적일 뿐 아니라 글로벌한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사람만의 영역과 '사람다움'은 무엇인가. 로봇시대를 살아야 하는 인류에게 동일한 질문이 내던져졌다. "인간의 약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계와 구별되는 최후의 요소다. 기계는 설계하는 대로 작동하고 우리는 사람의 결점과 단점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기계를 설계한다.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 의한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사람의 속성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로봇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여크로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공지능 로봇시대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의 기능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적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될 것이다. <여크로스 제공>

이슬람 무장세력·조직원의 생생한 목소리



지하디스트의 여정
파와즈 게르게스 지음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테러로 지구촌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마지막 부대가 현지에서 완전 철수한 것이 2011년 12월 18일이었다. 9년간의 이라크 전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존재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슬람 무장세력 혹은 지하디스트 조직원 개인의 생생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자 중동연구센터 소장인 파와즈 게르게스가 펴낸 '지하디스트의 여정'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나는 왜 이슬람 전사가 되었는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중산층 출신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난과 역경의 길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원래 '지하드'는 "열심, 노력"이라는 뜻을 지닌다. 원어 자체로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서구 기독교권의 이슬람 공포증을 유발하는 대명사가 되기까지는 '꾸란'에 대

한 해석의 차이와 문명 간의 갈등 등이 드리워져 있다. 저자는 지하드는 신의 뜻을 받들고 기리기 위한 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무력을 강조한 오사마 빈 라덴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저자가 수많은 지하디스트를 인터뷰하면서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빈 라덴은 이미 죽은 존재였다고 단정한다. 지하디스트 대부분은 빈 라덴이 내세운 국제적 지하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지 오래였고,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랍의 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산정책연구원·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국가감시, 자유 지켜주는 정당한 수단인가



감시국가
글렌 그린월드 지음

"미국 NSA(국가안보국)는 자국과 전세계 곳곳에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모든 디지털 통신과 무선 통신을 감시합니다." 2013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스노든 폭로로 국가감시 문제는 국제적인 쟁점이 되었고, 지난 6월 미국 상원은 NSA의 무차별적 통화 기록 수

집을 제한하는 '미국 자유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우리 시대 정삼급 논객들의 라이브 토론 배틀을 담은 책 '감시국가'는 국가 감시를 주제로 진행된 멍크 디베이트를 엮은 것이다. 국가감시란 테러 방지와 범죄자 수사를 위해 정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내외국인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감시는 국민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과연 NSA는 전 세계인의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수집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 토론에 참가한 네명의 패널들은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모던타임스·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 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 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안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리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테마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드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